

2018 전주시민의 장 모범시민상 수상자 결정

지역발전 헌신한 이는 누구?

내달 18일 시상식

전주의 명예를 높이고 전주발전에 기여해온 '2018 전주시민의 장·모범시민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전주시는 1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각계 분야에서 업적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전주시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5명을 최종 확정했다.

영예의 2018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는 효열장의 임은애씨(51, 여), 교육장의 강석근씨(59, 남), 문화장의 조종익씨(68, 남) 공익장의 정병준씨(81, 남), 체육장의 강중구씨(62, 남)이다.

먼저 효열장에는 거동을 못하시는 부모님과 몸이 불편한 미혼의 남동생까지 보살피고 있는 이름난 효녀이자, 결혼도 하지 않고 살신성인의 가족애를 실천 하고 있는 임은애씨를 선정했다.

또한 교육장에는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인사과장에 재직 중이며, 혁신학교와 수업혁신학년 운영, 특수학교 내실화등 지역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강석근씨를 선정했다.

문화장에는 태극선 일인자(전북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총 27회의

▶ 시민의 장 수상자 5명



임은애씨 강석근씨 조종익씨 정병준씨 강중구씨

▶ 모범시민상 수상자 5명



이용운씨 채봉덕씨 한상현씨 김성국씨 김홍국씨

공예대전에 작품을 출품하고, 80회에 걸친 국내의 전시회 개최를 통해 전통공예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기여한 조종익씨가 선정됐고, 공익장에는 40년동안 교직생활에 헌신하고, 퇴임 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양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한글과 생활한자 강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정병준씨가 선정됐다.

다. 마지막으로 체육장에는 전북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로서 수많은 체육인을 배출하고, 축구·테니스·골프 전라북도 대표 선수 출신으로 전주시 체육회, 전라북도골프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전주시 체육발전에 헌신해온 강중구씨가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사·의결을 통해 이용운(호성동), 채봉덕(송천2동), 한상현(덕진동), 김성국(노송동), 김홍국(인후3동) 씨 등 5명을 2018년도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수상자들은 평소 한결같은 성실한 봉사정신과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크고, 전주시민에게 귀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돼 수상자로 결정됐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주시민의 공자와 자부심이 담긴 전주시민의 장 및 모범시민상은 우리 지역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아 오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전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런 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는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贵宾으로 초청되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수상자로서의 예우를 받게 된다. 전주시민의 장 및 모범시민상 시상식은 오는 6월 18일 개최되는 '전주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지켜주세요'

전주시보건소, "손 씻기·익혀먹기 등 실천해야"

전주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병호)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단체모임과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국내·외 여행 기회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절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의 1군감염병 △살모넬라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

병원성대장균 등의 장관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다. 주요 증상은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1군감염병의 경우, 지난해 전국 4,874명(전북 214명, 전주 58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장관감염증의 경우 전국 1만5,717명(전주 42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수 제공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 △올바른 손 씻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기동취재반

'내 삶의 끝, 내 스스로'

전주시보건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나서

전주시가 시민들이 스스로 연명의료를 지속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해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병호)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총 92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등록하고, 홈페이지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 변경·열람·철회가 가능하고,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 정보포털·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에서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하거나 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는 등의 임종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연명의료를 시행 받지 않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도 할 수 있다.

장병호 전주시보건소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으로 언젠가 맞이할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주시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8개소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인 전주시보건소(281-6234)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북부지사(279-1182/230-2186) △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1577-7877), 예수병원(230-8114), 효사랑전주요양병원(278-8288), 효사랑가족요양병원(711-1106) △비영리단체인 웰다잉전북연구원(226-4433), 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지부(272-4430)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063-281-623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동취재반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시 경력단절여성 위한 고용·복지 만남의 날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취업지원과 현장채용까지 진행되는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고 나섰다.

전주고용복지+센터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박성숙)는 17일 전주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여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자 취업지원을 위한 '2018 고용복지+센터와 함께하는 고용·복지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여성들을 위해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현장면접과 간접채용 이력서 제출을 위한 채용대행 면접, 취업정보 제공 등의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주)미래서비스와 (주)뉴코스메틱, 엄지식품, 대지인병원, 엠마오사

랑병원 등을 비롯한 생산제조, 보건 의료, 사무직 등 다양한 직종 분야의 20개 업체와 간접 채용계획이 있는 구인기업 30여개 업체가 참가해 고용·복지 만남의 날의 열기를 높였다.

또한, 이날 고용·복지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현장채용 면접 외에도 복지 및 서민금융상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컨설팅 등을 진행하였고, 미래를 여는 4차 산업 홍보관도 운영하여 구직자에게 미래 직업 관련 정보 제공 및 3D프린팅 등의 다양한 현장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한편,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전주새일센터)는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덕진구,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전주시 덕진구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원활한 사회활동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덕진구(구청장 김기평)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덕진구는 지난 4월 동 주민센터를 통해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연령, 거동불편 정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27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보행보조기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보행보조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동취재반

완산구, 의료급여제도 교육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최근 완산구청 8층 강당에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및 약물 중독투약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올바른 약물복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잡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약물복용방법을 알리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 건강수준 향상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신규 수급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보부족으로 제때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의료소평, 약물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적절한 약물복용 교육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